

제도적 위기에 처한 니카라과: 민영화된 국가와 군주국가 사이에서

호세 루이스 로차 고메스*

2010년 4월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한 법령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이미 임기가 만료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판사 등 고위공무원 20명의 직위를 유지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제도적 위기는 유예되어져 온 국가 추락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 글은 17년을 기다린 끝에 권력을 차지한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이 어느 부분에서는 약한 국가를, 그 외의 분야에서는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외국인 투자와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민영화된 국가를 바라지만, 민주주의보다는 신정(teocracia)에 가까운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핵심어: 정치, 위기, 제도, 국가, 니카라과

I. 주권자에 대한 아부

지난 4월의 비는 ‘최고위층’ 공무원들 사이에 오간 욕설과 상호 비방이 한창일 때 니카라과에 쏟아졌다. 정치 계급 간에 벌어진 싸움판은 정당 지도부 사이에 오간 격한 비난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싸움의 강도는 정당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FSLN)에 헌신하거나 그 당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왔던 공무원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것에 비례해 증가했다.

국가의 두 권력기관에 속한 법관들과 체제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 José Luis Rocha Gómez, 니카라과의 ‘이주자를 위한 예수회 봉사국’ 국장. 맨체스터대학의 브룩스세계빈곤협회(Brooks World Poverty Institute) 협력 연구원. 중앙아메리카대학교(UCA)의 학술지 『엔비오(Envío)』와 『엔쿠엔트로(Encuentro)』의 편집위원.

다른 조직들은 이미 부패 단계에 진입했다. 이미 합법적이라는 말로는 덮을 수 없는 고약한 악취를 풍긴다. 정부의 지령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선거전략 중에 “연대적이며, 사회주의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니카라과”와 “민중 대통령의 정부”라는 구호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호지만 사람들에게 재미없고 진부하게 들린다.

비록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이 그 자리들을 영구히 차지하길 원할지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과 대법원의 대법관직은 정해진 임기만료 기간이 있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 일곱 개의 감찰관직, 인권 검사관직과 부검사관직을 차지했다. 2010년 1월 이미 임기만료를 세는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이미 형성된 권력구조는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의 왕성한 권력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뇌물공여나 약탈을 방조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2001년 선전적인 시각을 가졌던 아르놀도 알레만 대통령 행정부 때처럼 자유현정당(PLC)은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과 협정을 맺고 국가의 요직을 나누기로 했다. 그것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자도 역시 통치할 것이다”라는 근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협정을 맺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도 승리한다는 의미이다. 두 정당에 속한 가장 복종적이고 충성스런 당원들은 대법관, 감사관, 검사, 판사, 선거감독관 등이 되었다. 주민의 70% 이상이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슬픈 운명에 처한 나라에서 그들은 월 5,000달러 이상의 임금과 급여로 충성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산디니스타전선은 사법부 내 압도적인 상황(재판소의 80%와 일급자리 중 네자리의 대법관직)을 이용해서, 알레만 전대통령을 국고 약탈과 달러 세탁이란 죄목으로 고발함으로써 혼내주기로 결정했다. 미국 정부는 그의 죄를 증명할 자료를 제공했고, 엔리케 볼라노스 대통령의 검찰은 그를 기소해야 했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 의심 없이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믿었다. 최고지도자의 최종 포기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연속적이고 강제적인 세금징수가 이루어졌다. 그 후 자유현정당에게는 더 이상의 그 어떤 권력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 알레만 전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주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엔 그를 사면했다. 그러나 8년이나 걸린 이 게임에서 자유현정당은 결국 분열되고 말았다. 자유현정당에서 분리된 자유연합(ALN)은 지지자, 표, 당원의 삼분의 일을 가져갔다. 자유현정당은 국회에서 대부분의 의석을

상실했고, 니카라과 국내 주요 자본가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리는 것을 치명리는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지켜보았다. “옛 권력자를 제거하고, 권력을 잃은 옛 왕은 버리며, 새 왕을 모셔야 한다.”는 격언을 상기시켰다.

2006년 선거에서 자유주의파들의 분열은 결국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 자유헌정당과 자유연합으로 분열된 우파보다 426,754표를 덜 득표했고, 단지 선거인명부의 25%의 표 밖에 얻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부정을 고발하지 않는 검찰과 선거를 위조하기 위해 준비된 마약업자들에게 신분증을 팔아넘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례 없는 지원으로 권력에 복귀했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 『나의 형 시장 *Mi hermano el alcalde*』에서 등장인물 페르난도 바예호가 “사순시기 동안 죽은 자들을 투표하게끔 하기 위해 깨워야 한다. 그들은 당신이 바람을 쏘여주기 때문에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죽은 사람들은 잘 생각할 줄 안다. 죽은 사람들은 열정도 뒷말도 없다.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파노라마를 본다.”²⁾라고 한 말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권력기관들에는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의 지도자들이 국가의 재산을 제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지도 감시하지도 않는 감사원도 포함된다. 그리고 사법권력은 사면을 남발할 뿐 아니라, 고분고분하지 않은 같은 당원들이나 불온한 경쟁자들을 급습하는 추잡한 개다.

이런 기초 위에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 멀리 내다보고 임기만료로 인해서 법관직과 다른 공직들이 자신의 통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장악하기로 결심했다. 2010년 1월 9일 20개 이상의 국가 고위직을 공식으로 놓아둠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오르테가는 국가가 새로운 공직자들을 선출하지 못하는 동안 기존 공직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달리 말하면, 오르테가는 “새 공무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동안은 직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만일 내 사람들을 임명하지 못한다면, 선거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

1) Equipo Nítlapán-Envío: “Las piedras en los zapatos” en *Envío* año 29 Núm. 334-335, 1-2/2010, p. 15.

2) Alfaguara, Bogotá, 2004, pp. 48-49.

이 가진 38표에 아르날도 알레만의 21표나, 혹은 다른 자유주의파 지도자인 에두아르도 몬테알레그레의 12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능숙한 협상능력이 요구된다. 후자와는 협상이 되더라도 새 임명 동의안의 유효표에 해당하는 56표가 되지 않으므로 유효표로서는 아직 불충분하다.

야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동안은 새 공직자가 임명되지 않은 현 상태가 산디니스타들에게 이롭다. 하지만 임기만료 이후에는 암살을 포함해 각 법관들의 범죄 이력 공개, 모욕, 거리 봉쇄, 폭동, 행진 등 제도적 장애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³⁾ 식민 본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당시 발생했던 무정부 시대가 재현될 것이다. 국회는 개회하지 못하고, 거리는 점령되고, 위헌에 대한 항의는 상대방끼리 서로 공격하고, 결국 저항도 시민전쟁이 될 것이다. 대법원의 대법관인 라파엘 솔리스는 정직하게 진흙탕에서 나오기 위해 따라야 할 손쉬운 길(어떤 면에서는 신비로운 지름길)을 “국회에서의 56표는 의원들이나 그의 가족들에게 자리를 주어 매수하면서 얻으면 된다”⁴⁾는 식으로 제시했다. 군사정권 시기에 공포감에 질렸던 사람들, 땅에 묻혔던 사람들, 추방당했던 사람들은 고임금을 받고 매수되거나 변절한 사람들로 교체되었다.

항상 흔들리고, 불안하며, 총알이 난무하는 민주주의 풍토에 적응하지 못한 작은 나라들이 보여주는 이런 광경은 전형적인 혼란을 재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제도를 손상시키는데도 나름의 논리와 목적이 있다.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군주적 대통령제’(멕시코 제도혁명당이 창안한 라벨이 붙은)라고 부르는 것을 공고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검찰이 다니엘 오르테가와 로사리오 무리요 부부에게 아부하게 하기위해 최소한의 국가 기능만을 유지하는 것이다.⁵⁾ 이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국가는 약화될 것이고, 왕 없는 군주제가 될 것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먼저 국가의 약화를, 그리고 나중에는 제국적 대통령직의 형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3) Ramón H. Potosme: “Ex-magistrado Solís debuta como agitador” en *El Nuevo Diario*, 17/4/2010, <<http://impreso.elnuevodiario.com.ni/2010/04/17/politica/122621>>.

4) Leyla Jarquín y Ramón H. Potosme: “FSLN tiene dinero y hay comprables” en *El Nuevo Diario*, 2/6/2006, <<http://impreso.elnuevodiario.com.ni/2010/06/02/politica/125463>>.

5) Enrique Krauze: *La presidencia imperial*, Tusquets, México, DF, 2009.

II. 국가의 해체

국가의 제도성은 소모사 정권 때 최고조에 달했다. 40년대에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의 승인, 사회보장의 범위 확대, 노조와 기업가에 대한 국가의 협상, 대학교의 자치,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유일한 예외는 1960년대 이후 중앙아메리카대학교), 그리고 게릴라 운동의 말성으로 인해 반란이 일어난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잃지 않았던 폭력에 대한 국가의 독점 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⁶⁾ 이 노동법은 산디니스타 정부를 포함해 비올레타 바리오스 체제 아래서 1994년 신자유주의화 되기까지 거의 반세기 이상을 온전히 살아남았다.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촉진책에다 사회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면서 상업과 농업 부분의 요구에 응답했으므로 (그 모든 것을 가능한 최소 비용으로)”⁷⁾ 소모사 정부는 공고했으며, 그 권력을 유지했다.

80년대의 산디니스타정부는 국가 통제를 확대했다. 하지만 제도성을 담보하기 위한 본질적 측면인 화합과 합의를 증대시키지는 못했다. 은행을 국유화했지만 저축 증대를 달성하지도 못했고, 질주하는 인플레이션도 통제하지 못했다. 거대한 농목업 분야와 국영 공장—주민이 소유하는 영역—들을 만들었지만, 이들 중 어떤 분야에서도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다. 유통을 중앙집권화 했지만 활기찬 민간부분이 주도하는 시장의 등장을 막지는 못했다. 의심받는 수준까지 국가수비대의 군사력을(12만 명 이상으로까지) 확대했지만 결코 반혁명세력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국가가 나서 고용을 증대했지만, 도시 공무원들의 기본 생활품 보조에 따른 비용을 피로에 지친 농민들에게 전가시켰다.

90년대 국제금융기구와 그들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후원 하에 대자본의 탐욕이 주도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구만을 남기는 일종의 민영화 프로젝트였다. 공공 서비스의 보루 중에서 은행, TV, 사회보장 의료서비스와 유통 부분은 민영화되었다. 공교육은 이미 반 정도

6) 움베르토 오르테가의 분석에 따르면, 인민대중의 개입이 없었다면 산디니스타연대의 소수병력(전성기에도 1,000명 정도의 무장군)만으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었다. (Jorge G. Castañeda: *La utopía desarmada*, Joaquín Mortiz, México, DF, 1993, p. 128.)

7) Knut Walter: *El régimen de Anastasio Somoza 1936-1956*, Instituto de Historia de Nicaragua y Centroamérica, Managua, 2004, p. 395.

민영화되었다. ‘당연한 국가 독점판매권(전력과 통신)⁸⁾’ 아래 있던 것들은 팔렸거나 정부 통제에서 벗어났다. 주민들이 소유하던 조합들은 노동자의 손에서 탐욕스런 채권자와 은행가들의 수중에 떨어졌다. 1990년에서 1999년 사이 공공부분 근로자 채용은 28만 5천 명에서 8만 9천명으로 축소되었다.⁹⁾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 자신들의 선거공약을 거슬러 선임정부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드러나지 않게 국가에 세 번의 큰 타격을 가했다. 사실상 첫 타격은 경찰을 민영화 한 것이다. “(흡스가 말한 대로) 군인들을 모집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원하는 다른 모든 나머지 주권(권리)도 갖는다.”¹⁰⁾고 한 것처럼 임기 초반 오르테가는 자신의 기반인 산디니스타의 뿌리에 호소하면서 경찰과 군을 손보려 했던 것처럼 보인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 군사기구를 중립화시키고,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조직(특히 경찰)으로 만들려고 했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의 조종을 받는 대항세력을 구축하는 길을 선택했다. 경찰을 시켜 억압하는 대신에 균형을 통한 통제와 강제를 택했다. 야당이 시위를 조직할 때마다, 다니엘 오르테가의 지지자들은 야당 시위를 해산시킬 목적에서 그들과 같은 장소에 나타나 시위대에 돌을 던지는 반시위대를 조직했다. 당연히 경찰은 개입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것은 ‘민중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와 구호에 더 일치하는 전략이다. 선거전에서 독점된 폭력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보장된, 열정적인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 당원들의 손에 있다. 다른 한편, 이미 5년 전부터 치안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간기업체의 보안요원 숫자나 경력, 무기가 경찰의 규모나 능력을 넘어섰다. 치안분야에서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민영화는 계속 진행된다. 보안업체 만큼 많은 무기판매소는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에 뿌리를 둔 전직 경찰들의 소유이다. 무엇 때문에 이미 사설보안업체와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단지 세금을 감아먹을 뿐인 경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2010년 4월 범죄연구단의 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이 어떻게

8) 전기통신의 민영화는 국가가 통신망을 이용해 수행하던 도청 기능에 중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9) Rosa Spalding: “Las políticas contra la pobreza en Nicaragua” en Salvador Martí i Puig y David Close(eds.): *Nicaragua y el FSLN (1979-2009) ¿Qué queda de la revolución?*, Bellaterra, Barcelona, 2009, p. 357.

10) Thomas Hobbes: *Behemoth* [1681], Tecnos, Madrid, 1992, p. 103.

기록업무, 운전면허와 차량 운행증 발급, 정보관리 등 단지 하나의 관료적 절차 기구로 전락했는지 잘 보여준다.

국가에 가한 두 번째 타격은 사실상 사법부 행정의 민영화이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가 80%를 장악한 법원은 그들의 경쟁자들을 제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권력기재이자 동시에 수입의 원천이기도 하다. 문제는 단순히 라틴아메리카 법원들에서 너무나 일반화된 부패나 뇌물수수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당 소속의 실력자들 사이에서 국내 공동투자자들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성공을 바라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는 친자본주의 동업자와 함께 사법적 권한을 가진 산디니스타당원-정치가를 동업자로 확보해야만 한다.

끝으로,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확실한 타격은 광범위한 공공예산 할당분의 사유화이다. ‘아메리카 민중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의 자금은—근본적으로 석유판매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베네수엘라가 원조자금으로 지원하는—니카라과의 재정부 국고에 쌓이지 않고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이 관리하는 사기업의 손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니카라과에 제공된 수백만 달러가 개인이나 정당의 주머니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자금에 대한 관리 부재는 감사원, 재정부, 국세청, 국회에도 타격을 가한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 사회분야 투자에서 이전 정부들처럼 그저 낮은 수준의 투자 규모만을 유지한다. 비공식 경제 부분이 압도적인 나라에서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는 대중이 염려하는 중심 주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해외이주자들이 보내오는 송금이 사회보장 부분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교육과 사회보장의 보급은 주민들의 주된 요구사항이 아니다. 산디니스타정부는 근본적으로 사회부분의 투자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 이미 작아지고 약화된 정부와 그 정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산디니스타정부의 노력은 측근들을 위한 자리 배분과 같은 페론주의적 수혜주의(국가 행정기구들에서 업무처리 단계의 간소화와 무료 서비스), 공무원들을 위한 임금(기본 생필품에 대한 분배)과 대중의 환심을 살만한 인기 많고 진기한 서커스 공연(뜨거운 마나구아시 중앙에 얼음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일회적 행사에 대한 후원)에 집중된다. 이런 식의 국가 권력의 해체는 산디니스타민족해방

전선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가 없는 곳에는 비정당성 문제로 시비에 말려들 국가도 없기 때문이다.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의 약화와 관련된 기예르모 오도넬의 이론들은 해체된 권위주의 국가나 신자유주의적 전제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중교통의 마비와 파업이 일어날 수 있는 버스조합을 위한 연료 지원책, 그리고 “그리스도교적이고 사회주의적이며 연대적”이란 구호와 함께 지급되는 보너스(5월부터 12월 사이 ‘아메리카 민중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의 자금으로 지원되는 월 25 달러 정도의 석유 공급권을 임금이 열악한 20만 명의 국가 공무원들에게 제공) 같은 일시적인 진통제 투여식 정책 때문에 둔감해지는 영역이다. 이렇게 정부가 염려해야 하는 부분은 축소된다.

III. 신학적이고 실용적인 군주정치

선거기간 동안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 신자유주의 정부 17년 간(1990-2006) 진행됐던 국가 기능의 약화를 원상태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산디니스타 가운데 가장 활동적인 지식인이며 ‘기아 제로’ 프로그램(산디니스타 공약의 중심 축이었지만 최근에 와서야 알려진)¹¹⁾의 창설자인 오를란도 뉴네스는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연대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직전에 출판된 그의 책 『니카라과의 과두제 *La oligarquía en Nicaragua*』¹²⁾에서 국가기능 축소에 반대하고 국가의 쇠신을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뉴네스와 그의 주장은 급격히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무슨 이념적 제안이 그 공백을 메웠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신학이었다.

다니엘 오르테가가 권력을 장악한 후부터 하느님은 휴직이나 반실업 상태를 벗어나 완전고용 상태가 되었다. “만일 하느님이 원한다면,” “하느님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느님께 간청해봅시다”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매번 입버릇처럼 쓰는 말들이다. 4월 14일에 오르테가는 “나는 하느님께서 니카라과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신 역사적 기회에 대해 니카라과 형제들에게 말할 수 있다.

11) 이 공약은 시골지역 가정에 2천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소, 돼지, 닭, 경작에 필요한 도구 등의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12) Centro para la Investigación, la Promoción y el Desarrollo Rural y Social (Cipres), Mangua, 2006.

하느님은 우고 차베스를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되도록 인도하셨다. 또한 하느님은 민중을 통해 우리가 정부를 이끌 수 있도록 하셨다.”라며 역사적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4월 30일에는 “나는 니카라과 형제들에게 감사한다. 하느님께서 당신들에게 준 지혜는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이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당신들을 깨우쳐주셨다.”라며 ‘민심은 곧 천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민중과 한 약속을 실천하는 것은 하느님과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쓰인 거대한 정부 선전 포스터는 수도 여기저기에 뿌려졌고, 하느님과 약속을 꼭 실천할 것이라고 선전했다. 안드레스 페레스-발토다노의 날카로운 분석은 섭리주의라는 니카라과 문화의 주요 측면에 대한 것이다. 정치가들의 활동과 언어에서 섭리주의는 권위의 근거를 하느님께 의존하며, 역사적 과정을 신의 손에 맡긴다. 그것은 초자연적 힘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꾸며진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역사의 관리자이며 주인이다. 정치가들은 —어떤 정치가들은— 하늘의 의지와 지상의 인간들의 운명 사이의 중개자로 등장한다. 대통령은 대중의 안내자이며 신학자의 역할을 수행한다.¹³⁾

그러나 과거의 섭리주의는 오늘의 섭리주의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다. 새 섭리주의는 국가와의 관계와 선의(善意)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의 것과 다르다. 19세기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정부들의 섭리주의는 막 형태를 갖추어가던 국가와 관련이 있다. 그의 축수는 결실도 없이 전국 구석구석까지 미치기 위해 몸부림쳤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과거의 섭리주의는 팽창 중이던 국가에 대해 보완적이었다. 새로운 섭리주의는 국가의 대항자이다. 그리고 그의 조정능력은 약화 일로에 있다.

한편, 과거의 섭리주의는 확신에 찬 정치가들로부터 싹뻗으며, 신성(神性)한 권력에 대한 선의를 믿었다. 새로운 섭리주의는 지배의 도구로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에 의해 사용되었다. 문제는 실리주의의적인 섭리주의에 관한 것이다. 신은 세속적으로 의문시되는 권위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용되었

13) Andrés Pérez-Baltodano: *Entre el Estado Conquistador y el Estado Nación: Providencialismo, pensamiento político y estructuras de poder en el desarrollo histórico de Nicaragua*, Instituto de Historia de Nicaragua y Centroamérica, Managua, 2003, pp. 76-82.

다. 대통령 부부의 갑작스런 가톨릭으로의 개종과 가장 보수적인 색깔을 띠는 진영에 대한 열정적인 구애는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메뉴판 같았다. 갑작스러운 미겔 오반도 이 브라보(Miguel Obando y Bravo) 추기경과의 화해는 전채요리에 해당하고, 추기경이 주례한 두 번째 결혼식(게릴라 시절 산에서 치러진 오르테가의 혼인은 무효라고 선언하면서)과 치료적 낙태 불법화를 달성하기 위한 압력과 공격적인 로비활동은 주 요리에 해당한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 내의 좌파 지지자들과 여성주의자들을 실망시킨 것은 쓰디쓴 후식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신에 대한 의존은 군주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전지전능한 신은 전지전능한 대통령제를 지원한다. 소모사정권 때부터 행정부는 독재제도를 약화시키지 못했다. 비올레타 바리오와 엔리케 볼라노스는 자신들의 경쟁자인 입법의 회와 자신들의 약한 권력을 나누어야 했다. 제1기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 정부는 아홉 명의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배분했다. 그러나 지금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집단지도체제에서 일인 중심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그것은 선거에 나타난 ‘강력한 통치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전략이었다.¹⁴⁾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 기존 법을 대체하는 법령 선포, 공공 분야와 관련된 모든 홍보에 대한 통제, 내각의 임명과 해임, 이급의 전반부에서 언급한 직원들에 대한 통제권 등 광범위한 자유 재량권을 대통령 부부에게 양도하면서 권력에 복귀했다. 이렇게 군주제는 인사(人事)를 장악하고 어떤 정치색깔을 띤 반란이라도 굴복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국가를 원한다.

여기서 우리는 보아벤투라 데 소사 산투스가 강조한 전지구화한 세계의 국가기구들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역학을 볼 수 있다. 즉 “어느 일정 분야에서의 탈중심은 다른 국가 활동 부분의 강화와 공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 서비스(주거, 보건, 사회보장)의 후퇴는 국가가 제공하는 상징적인 서비스의 확대와 공존할 수 있다.”¹⁵⁾는 것이다. 니카라과의 경우 실용적 전략 설정은 어떤 분야를 없애고

14) Salvador Martí i Puig, “Mutaciones orgánicas, adaptación y desinstitucionalización partidaria: el caso del Frente Sandinista de Liberación Nacional (FSLN), 1980-2006,” in *Revista de Estudios Políticos*, Núm., 143, 1-3(2009), pp. 101-128.

15) *La globalización del derecho. Los nuevos caminos de la regulación y la emancipación*, Facultad de Derecho, Ciencias Políticas y Sociales,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Bogotá, 1998, p. 30.

축소하고 민영화할지를 선택한다. 그리고 어떤 것을 보존하고 강화할지를 결정한다. 그렇게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 거대 초국적 자본의 필요와 당의 재선 전략 사이의 화해점을 찾는데 성공했다. 더 많은 재정적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국가 관리 부분의 축소와 외국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국가 분야의 강화는 거의 군주제적 권력이 지향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조영현 번역)